



‘유망주들이여! 능력을 보여줘’

축구대표팀 ‘베어백호’ 6일 첫 소집 ... 본격적인 주전경쟁

한국 축구대표팀이 펠 베어백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지 40여일 만인 6일 낮 12시부터 광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본격적인 주전경쟁에 들어간다.

16일 대만과 치를 2007 아시안컵 예선전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 20명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베어백 감독이 앞서 발표한 36명 가운데 이천수, 최성국, 이종민(이상 울산),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 조재진(시미즈), 김진규(이와타), 김정우(나고야) 등 8명은 소속팀 사정으로 첫날부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다.

조준현 대표팀 주무는 “현재까지 첫날부터 훈련에 참가하기로 한 28명 모두 광주NFC에 입소하기로 했다”며 “이적을 추진 중인 안정환(뉘스부르크)도 계획대로 합류한다”고 설명했다.

베어백 감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시안컵 예선뿐 아니라 2006 도하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울리겠다는 것.

이미 “나이가 어려도 가능성과 재능을 보여준다면 빠른 시기에 대표팀에 합류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그는 지난 3일 A3 챔피언스컵대회 관전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젊고 능력있는 선수들을 관심있게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전에 대비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28명을 25세 이하로 구성했다. 또 생애 처음 성인대표팀 훈련에 참가하게 된 선수도 9명이나 된다.

지난 2001년부터 ‘히딩크호’ 수석코치를 시작으로 한국축구를 인연 맺으면서 충분한 분석을 마친 만큼 2007년 아시안컵과 멀게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내

다보면서 ‘젊은 자원’을 이번 소집훈련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베어백식 지도법’이다. 이미 히딩크호와 아드보카트호에서도 선수들을 지도해 왔지만 대만전을 앞두고 어떤 전술로 자신의 사령탑 데뷔전을 준비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베어백 감독은 일단 가장 적합한 ‘한국적 시스템’을 찾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킨 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결국 ‘한국적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이번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어백 감독은 총 36명 중에서 10일 오후 대만전 최종엔트리 20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일단 FA컵 대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팀에 복귀한 뒤 최종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만 13일 오후 광주NFC에 재소집된다. 이후 최종엔트리 20명은 14일 대만으로 출국해 16일 경기를 치르고 17일 귀국하게 된다.

지성·영표도 ‘출격준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듀오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이영표(29·토트넘 핫스퍼)가 주말 본격적인 주전 경쟁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LG 암스테르담컵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맨유는 5일 오전 2시(이하 한국시간·MBC ESPN 생중계) FC포르투, 6일 오전 4시에 아약스 암스테르담과 각각 맞붙는데 박지성은 두 경기 가운데 한 경기에 출격을 준비 중이다.

이영표에게도 주말이 올 시즌 주전 경쟁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이영표는 5일 오후 10시30분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원정 친선경기를 치른다.

‘설바우두’ 설기현 3호골

한국인 3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설기현(27·레딩FC)이 이적 후 3호골을 터트렸다.

설기현은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열린 스웨덴 갈스타스 FK와 원정 친선경기에서 후반 17분 존 오스터 대신 오른쪽 윙포워드로 교체 출전해 후반 37분 팀의 5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남자 줄줄이 부진

브리티시여자오픈 1R ... 위성미 2오버파 44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 첫 우승에 도전하는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브리티시여자오픈 첫날부터 발걸음이 무거웠다.

위성미는 3일(한국시간) 영국 블랙홀의 로열 리엄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링크스(파72·6천463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4개를 묶어 2오버파 74타를 쳐 공동44위에 그쳤다.

6언더파 66타를 뽑아낸 단독 선두 줄리 잉스터(미국)에 8타나 뒤진 위성미의 첫날 성적은 대회에 앞서 전문가들이 꼽은 우승 후보로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74타는 올해 위성미의 18홀 스코어 가운데 가장 나쁜 것. 위성미는 크래프트나비스 코헨퍼인십 1라운드 때와 US여자오픈 최종라운드 때 73타가 최악의 성적이었다.

연습 라운드와 프로암 때 바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등 심술 곳았던 날씨가 쾌적하고 화창하게 변모한 가운데 위성미는

초반 3개홀에서 경기를 망치다시피 했다.

운동 관심이 위성미에 쏠린 사이 만46세를 갓 넘긴 잉스터는 이글 1개와 버디 5개를 쓸어담으며 66타의 불꽃타를 휘둘러 2위 실비아 카바렐리(이탈리아), 마리아 요르트(스웨덴) 등을 3타차로 제치고 순위표 맨 윗 줄을 점령했다.

3언더파 69타를 친 공동2위 카바렐리, 요르트에 이어 엘리스 헤너, 니나 라이스, 글래디스 노세라 등이 2언더파 70타로 공동4위 그룹을 형성하는 등 비교적 낮은 선수들이 선두권에 들어간 가운데 ‘코리언 군단’은 힘을 쓰지 못했다.

재미교포 김초롱(22)이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7위에 올랐고 루키 이지영(21·하이마트)과 이정연(27), 양영아(28) 등이 이븐파 72타로 공동16위에 포진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박세리(29·CJ), 김미현(29·KTF), 장정(26·기업은행) 등은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가 4일 영국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대회 1라운드에서 벙커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벙커 탈출

추신수 ML데뷔 첫 ‘만루포’

시즌 2호 홈런... 최희섭 이어 한국인 선수 2번째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외야수 추신수(24·사진)가 메이저리그에 진출

한 뒤 생애 첫 만루포를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4일 보스턴 핀웨이파크에서 벌어진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경기에서 3-3 동점으로 팽팽하던 6회초 1사 만루에서 상대 에이스 조시 베크의 초구 한가운데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간 담장을 살짝 넘는 만루아치를 그렸다.

이는 추신수의 데뷔 첫 만루홈런이며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 타자로서는 작년 4월 30일 콜로라도전에서 당시 LA 다저스에서 뛰던 최희섭이 친 만루홈런 이후 두번째다. 지난 7월27일(이하 한국시간) 6년간 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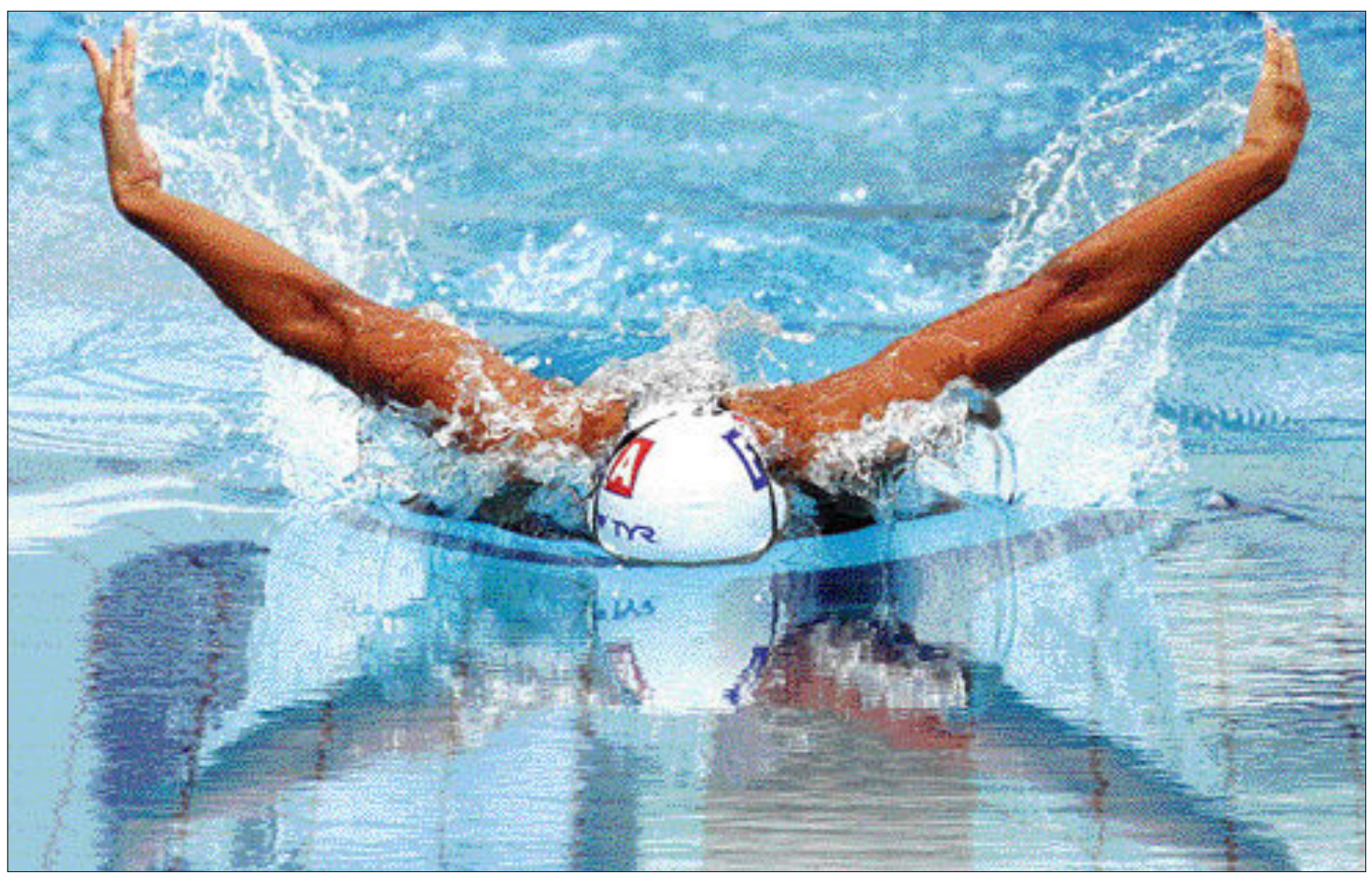
있던 시애틀을 떠나 클리블랜드에 새 동지를 틈 추신수는 이적 후 클리블랜드에서 첫 경기인 7월29일 시애틀전에서도 결승 솔로포를 터뜨린 데 이어 시즌 2호 홈런을 역전 만루홈런으로 장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00호 이승엽 ‘인기짱’

요미우리, 1천만원 포상금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한일 통산 400홈런을 달성한 이승엽(30)에게 포상금 1천만원(8천415만원)을 줄 예정이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4일 인터넷판에서 요미우리 구단이 5일 도쿄에서 열리는 요코하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이승엽의 한일통산 400홈런 기념식을 열 계획이라고 보도한 뒤 요미우리 그룹은 이승엽이 한일 양국 팬을 하나로 묶은 공로를 인정, 포상금 1천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8회 유럽수영선수권대회 여자 200m 결승에서 프랑스 리우레 몽나드선수가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신의 역영

4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8회 유럽수영선수권대회 여자 200m 결승에서 프랑스 리우레 몽나드선수가 역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재응 1실점 호투 ‘아깝다’

디트로이트전서 4승 달성 실패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1실점의 호투를 펼쳤으나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4승 달성에 실패했다.

서재응은 4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디트로이트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7개를 맞았으나 삼진 4개를 슈아내며 1실점

로 막았다. 서재응은 0-1로 뒤진 7회 2사 후 손 케이시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한 뒤 세스 맥클럼으로 교체됐다. 맥클럼이 후속 타자를 범타로 처리, 서재응의 추가 실점은 없었다. 탬파베이는 7회말 1사 2,3루에서 B.J. 엠티의 중전 적시타와 상대 수비진의 실책성 플레이에 편승, 2점을 얻어 전세를 뒤집어 2-1로 승리했고 서재응은 패전에서 벗어났다. 시즌 성적은 3승9패를 유지했고 평균자책점은 5.94에서 5.56으로 낮아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5일(토)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50·SBS스포츠)
 - ▲프로야구<삼성-한화>(18:30·KBS SKY SPORTS), <SK-롯데>(21:00·MBC ESPN)
 -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불가리아-대한민국)(23:30·KBS SKY SPORTS)
- 6일(일)
 - ▲PGA 투어 뷰익 오픈 3R(04:0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워싱턴-샌디에고>(10:55·X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요코하마>(17:50·SBS스포츠)